

신유복전의 作品世界와 理想主義의 性格

辛 泰 洙

〈目 次〉

- | | |
|----------------------|--------------------|
| 1. 問題 提起 | 4. 理想主義 具現의 社會的 意味 |
| 2. 作者評과 作品의 距離 | 5. 結論 |
| 3. 作品 構造와 超越의 存在의 機能 | |

1. 問題 提起

신유복전은 국내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허구적 인물인 신유복을 주인공으로 삼은 소설이다¹⁾. 한미한 처지의 주인공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하층영웅소설의 범주에서 다룰 만하다. 특이한 것은 신유복이 중국에 원병장으로 가서 천자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위기에 빠지면 조선 또한 위기에 빠진다고 하게 마련인데, 신유복전에서는 조선은 안전하고 중국만 위기에 빠져 있다고 설정했기 때문에 주인공이 중국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동아시아의 판도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이 중심이다. 중

- 1) 작품에 신유복의 부친이 '신영'으로 나타나 있다. 서두에서 “화설 히동 조선국 명종덕왕 시절이라” 했으니, 신영은 명종 연간의 인물이다. 그런데 申瑛이라는 인물이 명종 연간에 실존했다는 점에서, 혹시 작품 속의 '신영'이 실존했던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國朝人物考』에 실린 夷簡公 神道碑銘과 작품을 비교해보면, 장절공의 후손이라는 점, 누대에 진사벼슬을 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만으로 동일인이라고 하기는 이르나,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만약 동일인이라 한다면 의문이 새롭게 생긴다. 어쨌든 작자는 신영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허구적 인물인 신영의 아들을 주인공으로 삼았는가가 그것인데,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조선인이 중국의 위기를 구원한다고 했으니, 조선이 야말로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점에서 신유복전은 下層英雄小說史에서도 매우 색다른 위치를 점한다고 하겠다.

신유복전 이전의 하층영웅소설은 두 가지 계열로 나누어진다. 홍길동전, 전우치전, 최고운전의 계열과 임진록, 박씨전, 임경업전의 계열이 그것인데, 전자의 계열에서 후자의 계열로 이행한 것이 하층영웅소설의 역사이다. 두 계열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전자의 계열에서는 대체로 사건의 전개양상이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고, 주인공의 능력이 적대 세력에 비해 월등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이에 비해 후자의 계열에서는 사건의 전개양상이 민족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주인공의 능력이 탁월하지만 적대 세력의 능력도 이에 못지 않기 때문에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 사건의 전개양상이 개인적인 데서 민족적인 데로 이행하면서 주인공과 적대 세력과의 관계가 한층 복잡해진 바인데, 하층영웅소설이 한 단계 진전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²⁾.

하층영웅소설의 진전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이것은 社會的 歷史的 時空을 소재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임진록, 박씨전, 임경업전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 같은 전란을 핵심적 소재로 삼았음을 주목해 보자, 이런 작품들은 민족 전체가 수난을 겪은 전란을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개인과 민족의 관계, 주인공과 적대 세력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었으니, 사회적 역사적 시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전란만이 소재의 전부일 수는 없다. 전란 이외의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소재로 삼을 수 있을 터인데, 이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신유복전이다. 신유복전에는 다른 어느 하층영웅소설의 경우보다 주인공의 궁핍한 삶이 짙진하며, 특이하게도 위기에 빠진 중국 천자를 구원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주인공의 궁핍한 삶은 사회적 시공을 소재로 했

2) 필자는 민중영웅소설에 속하는 작품을 하나 하나씩 다룬 바 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개략적으로 정리해본 것이다. 참고로 해당 논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홍길동전 : 『龍淵語文論集』6, (慶星大 國語國文學科, 1993)

전우치전 : 『茶谷李樹鳳博士停年紀念 古小說研究 論叢』, (景仁文化社, 1994)

최고운전 : 『문학과 언어』15, (文學과 言語研究會, 1994)

임진록 : 慶北大 博士論文, (1992)

박씨전 : 『嶺南語文學』25, (嶺南語文學會, 1994)

임경업전 : 『語文學』56, (韓國語文學會, 1995)

을 법하고, 중국 천자의 구원은 임진록의 내용을 뒤집은 것이므로 역사적 시공을 변용했을 법하다. 신유복전의 작자는 나름대로 새로운 소재를 찾아내고 이를 형상화했으리라 여겨진다.

신유복전의 현전 이본은 모두 2종이다. 각기 1917년과 1925년에 나온 구할자본이 그것인데³⁾, 필사본이나 목판본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17년에 처음으로 창작되었으리라 여겨진다⁴⁾. 1925년본은 1917년본과 내용이 그대로 일치하면서도 서술분량면에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1917년본 내용을 축약한 것이 1925년본이라 하겠다. 필자는 1917년본을 자료로 삼아 신유복전의 작품 세계와 하층영웅소설사에서의 위상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신유복전이 이른바 國外遠征軍談小說의 측면에서만 주목받아 왔음⁵⁾을 감안하면, 필자의 논의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2. 作者評과 作品과의 距離

신유복전의 결말 부분에는 작자가 상당한 분량에 걸쳐 論評을 하고 있다. 이것을 作者評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작자평에는 작품의 內容, 작자의 世界觀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작자평에 나타난 작품의 내용 및 작자의 세계관은 어떠하며, 이런 것들이 과연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작자평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 인용해본다.

가) 각설 동서양을 막는하고 영웅호걸이 자고금금해야 만치 아는 거시 안이
로되 종말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실패한 스름이 만컨만은 신원수의 역사

3) 2종의 제목이 각기 다르다. 1917년본은 '申遺腹傳'이고 1925년본은 '천정연분'이다.

4) 북한의 조선문학사 고전연구실 편, 『고전소설 해제』, (문예출판사, 1991), 218쪽에서는 신유복전이 오래 전부터 민간에서 수사본으로 많이 읽혔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본 중 필사본이 있다는 말이 되고, 창작연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여지도 생긴다. 이럴 가능성이 있지만, 현전 필사본이 없으므로 시비를 차리기는 어렵다.

5) 李永信, 國外遠征軍談小說研究, (韓國學大學院 碩士論文, 198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권순궁, 申遺腹傳과 민족주체의식의 한계, 『成大語文』27, (成均館大 國語國文學科, 1990)

렬람^하야 본즉 지조는 천 사^하룸에 지내가고 지혜는 만 스^하룸에 지니며 용^하밍은 고금에 렬티^하고 겸^하야 충의가 공전절후^하깃스니 동서양의 영웅호걸들을 슬하에 쏠닐 만흔 인물일너라 고언에 ^하앗스되 인걸디령이라 ^하더니 지고지금^하야 조선 동헌에 특별^하흔 영웅이 비출^하니 검수공손일시 분명^하더라(69쪽)

- 나) 독주시여 여차^하 동지를 보게드면 인물 우렬을 가히 알지라 고진감^하터며 흥진비^하키는 턴연공리어니와 동서양을 막^하는^하고 사^하룸이 미양 녁귀^하홀수록 욕망이 불갓치 이러나서 득^하농망촉^하는 마^하암으로 더욱 극귀^하 랑으로 불나 뷔 밝은 비슬 탐^하야 등잔불에 돌겨들고 소경이 평평^하함을 취^하야 파^하밭에 드러가드시 한^하업시 극귀^하 디위를 영^하동^하밍^하랑^하스^하럼에 도모^하라다가 도로혀 신^하망^하가^하피^하는 디경을 당^하야 노루 빅^하곱 씹고 사^하슴 췌^하를 부지르^하는 탄^하식을 혼들 후회 막^하급이요 막가^하니하^하라 서^하한^하씩 중^하량은 적^하송^하즈를 따^하라갓다 ^하고 월^하국 시^하디에 범^하녀은 오^하호를 건^하너가^하서 룡^하축^하장^하사^하야 부^하귀^하를 부^하운^하갓치 녁이여 피^하홍^하길^하질^하흔 사^하람이 잇^하스되 이^하갓치 돌^하판^하흔 신^하류^하복은 부^하귀^하공^하명^하이 지^하족^하함을 췌^하다^하름으로 세^하상이 자 쏴^하데^하업^하다 공^하성^하신^하퇴^하지^하후 립^하천^하에 초^하당 지^하어 만 권 서^하책 싸^하어^하놓^하고 여^하러 자^하손 교^하육^하시^하키며 부^하모 위^하야 사^하당^하집^하을 정^하결 건^하축^하고 공^하전^하절^하후^하는 충^하렬^하부^하인 업^하헤 동^하좌^하고 남^하노^하녀^하비^하로 더^하부^하러 농^하업^하과 방^하적으로 힘^하써 치^하산^하하며 원^하근 친^하구를 청^하요^하야 음^하풍^하영^하월^하노 세^하월^하을 한^하양^하야 가^하며 여^하가에 아^하름^하다^하은 풍^하광^하이 톱^하도^하하면 경^하치^하를 취^하야 휘^하주^하승^하선^하야 검은 고^하줄^하을 울^하니며 강^하호에 빅^하구^하로 버^하슬^하습^하아 소^하조^하침^하의 취^하를 발^하부^하니 세^하상에 아 오^하라 아^하지 못^하흔 핑^하녀 과^하각^하이 되^하미 넷^하날 입^하신^하양^하명^하야 녁^하귀^하흔 일^하을 드^하르며 싱^하각^하야 보^하면 일^하장^하춘^하몽^하일^하너라 네^하적^하에 자^하죽^하주^하는 천^하췌^하의 보^하감^하이 되^하미 뒤^하라^하서 흠^하션 칭^하찬 아^하니^하리 업^하더^하라(74-75쪽)

작자평이 두 군데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가)와 나)로 정리해 보았다. 가)에서는 ‘조선 동헌에 특별^하흔 영웅이 비출^하니 검수공손일시 분명^하’다고 했다. 이렇게 말한 근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지조는 천 사^하룸에 지내가고 지혜는 만 스^하룸에 지’낸다는 것이고, 둘째는 ‘용^하밍은 고금에 렬티^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충의가 공전절후^하’라는 것이니, 이를 간추려 보면 탁월한 才能, 눈부신 勇猛, 강렬한 忠義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유복은 ‘특별^하흔 영웅’이고, 특별한 영웅을 배출한 조선은 금수강산이라고 한 것이다. 나)에서는 ‘부귀공명이 지족^하함을 췌달’

았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영귀해질수록 만족하여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욕망을 추구하다 ‘노루 뱃곱 씹고 사슴 뺨을 부지르는 탄식’을 하게 마련인데, 신유복은 분수를 차리고 초야에서 자연을 노래하며 여생을 보낸다는 것이다. 아주 장황하게 신유복의 안분지족을 설파해 놓고 張良이라든가 范蠡의 고사⁶⁾까지 두루 끌어들었는데, 신유복의 安分知足이 장량과 범여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다.

신유복은 가)에서 말한 사항과 나)에서 말한 사항을 모두 지니고 있다. 가)와 나)를 연결시켜 보면 결국 탁월한 재능, 과인한 용맹, 강렬한 충의를 지니면서 동시에 안분지족하는 인물이라 하겠는데, 과연 재능, 용맹, 충의가 범상치 않으면서 안분지족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재능, 용맹, 충의는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고 안분지족은 내적으로 잠재되는 것이니만큼, 재능, 용맹, 충의를 강하게 지니면 지닐수록 안분지족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자에 의하면 가)와 나)는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공유할 사항이다. 가)만 있고 이것만 미루어 간다면 ‘불나뿔 밝은 비슬 탐하야 등잔불에 돌려들고 소경이 평평함을 취하야 파빛에 드러가’는 지경에 빠져들게 마련이므로, 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작자는 다소 어긋나는 가)와 나)를 연결시켜 ‘특별한 영웅’은 적절한 선에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하겠다. 그렇다면 작자의 이런 世界觀이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가?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먼저 재능에 대해 살펴보자. 신유복은 스승인 원강도사로부터 “흔 자를 가라치면 뱃자를 능통”¹⁷⁾쪽)한다는 칭찬을 듣는다. 또한 어느 선비가 신유복의 글을 보고 “넋날 리틱빅과 두목지가 강생하야 지을지라도 이 글에 맞지 못하것도다(18쪽)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신유복의 문장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 수 있다. 스승, 어느 선비로부터 인정받는 능력은 과거 시험장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글제를 한 번 보고 일필휘지 선장하여 임금으로부터 ‘만장중 제일이라’(25쪽)는 평가를 받았으니, 모든 사람들이 신유복의 재능을 인정한다고 하겠다. 장원급제를

6) 張良은 漢高祖의 謀臣으로 楚를 멸망시키고 漢業을 세운 자인데, 만년에 은둔하여 黃老를 사모하고 神仙術을 닦았다 한다(『史記』第55, 漢書40). 范蠡는 春秋時代의 楚人으로서 越王 勾踐을 도와 吳나라를 멸망시키고 會稽의 치욕을 씻어 주었는데, 그 이후 致土하고 陶에 숨어 살면서 大富豪가 되었다 한다(『史記』第69, 貨殖列傳). 두 인물은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만년에 숨어살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함은 당연하고 높은 벼슬은 목전에 있다. 재능은 이것만이 아니다. 신유복은 문장 능력 이상으로 검술 능력도 탁월하다. “검술이 비상함이 당시 동서양에 무쌍하고 무등한 영웅호걸의 지목”(17쪽)이라는 원강도사의 찬사를 통해볼 때, 그 능력이 범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전쟁에 나서기만 하면 탁월한 검술이 유감없이 발휘될 것이고 장수 자리는 기약되어 있다.

다음으로 용맹에 대해 살펴보자. 전장에 나가기까지의 과정, 경과를 살펴보면 용맹의 정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신유복은 명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청하여 원병장이 된다. 이 때의 거동을 보면 “양미 간에 천디조화와 일월광치 어렸”(57쪽)고 천지에 두려울 것이 없다. 명나라를 침범한 서번, 가달, 몽고를 오랑캐라 규정한 다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적진을 향해 돌진한다. 오랑캐는 “천위를 모르고 대국을 침범”(59쪽)했으니, 씨 없이 함몰시켜야 한다는 것이 신유복의 소신이다. 그런데 오랑캐의 적장들은 한결같이 강하다. 신유복이 쉽게 이길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는데, 적장이 강하다고 해서 신유복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다. 적장이 워낙 강력하니 신유복의 용맹이 더욱 빛이 날 뿐이다. 적장과의 싸움에서 “검광은 일월을 희롱하고 말굽은 분분하야 능히 자웅을 분별치 못홀”(60쪽) 지경이나, 항상 승리는 신유복이 거둔다. 신유복이 워낙 용맹하므로 제장군졸이 나설 겨를이 없다. “천세 천세 천천세”(69쪽)라 하며 신유복의 위용을 칭송하는 것이 제장군졸의 유일한 소임이다.

다음으로 충의에 대해 살펴보자. 신유복이 오랑캐를 궤멸하고 명나라의 사직을 보전하자 황제는 “황서 남문 밋게 충렬비를 광장하게 세우고 심사당을 건축하여 사시향축을 풍비하게 하사 만세에 류전하게”(70쪽)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라면 첫째는 전공을 포상하여 환심을 사고자 함이고 둘째는 명나라에 잔류시켜 倭臣으로 삼고자 함인데, 신유복은 첫째번에 대해서는 感泣해 하면서도 둘째번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는다. 자신은 본시 조선 임금을 섬긴 처지이고 조선 임금이 또한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사군하는 신자의 도리”(71쪽)를 다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중국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다. 황제는 떠나가는 신유복에게 “양국충신”(71쪽)이라고 극찬하고, 조선 임금은 돌아온 신유복에게 “경갓흔 이는 고금에 드물”(72쪽)다고 극찬한다. 나라 안팎의 제왕으로부터 명실공히 극찬을 받았으니, 이 이상으로 충의를 확인할 길이 없을 것이다. 충의의 최고 단계가 임금과 신하 사이를 굳게 하고 사직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⁷⁾, 신유복의 충의는 이런

조건에 적실히 부합된다.

마지막으로 안분지족에 대해 살펴보자. 신유복은 조선에서 최고의 벼슬을 누리다 나이 70에 벼슬을 내어놓고 고향에 돌아간다. 잔명을 다할 때까지 벼슬자리에 있으면 분수에 맞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나이 70에 벼슬을 그만 두었다면 과연 안분지족이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늘그막에나마 분수를 차린다 했으니 안분지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쨌든 작자평에서 야단스럽게 언급한 안분지족에 비해서는 강도가 훨씬 뒤떨어진다. 신유복은 다른 측면에서 안분지족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백발이 성성해지자 다시 젊어지지 못함을 한탄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전정무일흠을 씌닫고 후원 국년에 보진을 화려이 설비하고 잔치를 평장이 비설하야 부인과 여러 주녀로 더부러”(75쪽) 연일 즐긴다. ‘전정무일흠을 씌’ 달았다고 했으니, 성대한 잔치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보여준다고 보든 삶의 달관적 자세를 잔치라는 형식을 통해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나이 70에 낙향한 것만으로는 작자평의 언급에 미치지 못하나, 늙음을 인생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부가됨으로써 작자평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겠다.

작품을 통해 재능, 용맹, 충의, 안분지족을 살펴보니, 작자평에서 언급한 사항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재능은 탁월하고 용맹은 과인하고 충의는 강렬하면서도 안분지족하므로, ‘특별한 영웅’은 적절한 선에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작자의 세계관도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작품에는 신유복의 재능, 용맹, 충의, 안분지족만 나타나는가? 그렇지가 않기에 문제이다. 작품에는 작자평인 가)와 나)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고난 문제가 엄연히 다루어지고 있다. 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항이 나타난 셈인데, 의도하지 않은 사항이야말로 작품에서 대단한 분량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무시할 수 없다. 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바가 대단한 분량으로 나타난다면, 작자의 논리와 작품의 논리가 일단 어긋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고난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품 전체의 줄거리를 개략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신유복은 전라도 무주출신이다. 조실부모하고 유리걸식하며 떠돌아다니다 경상도 상주까지 흘러들어오게 되는데, 우연히 知人知鑑을 지닌 상주목사의 눈에 든다. 상주목사의 주선으로 상주관의 戶長家에 장가를 드나, 박대를 받고 이내 쫓

7) 馬融, 『忠經』第1, 天地神明章. “忠 能固君臣 完社稷 感天地動神明 而況於人乎”참고.

8) 전체가 76쪽인데, 이 중 25쪽에서 고난 문제를 다루었다. 고난 문제가 30%를 상회한다.

겨나온다. 아내와 같이 유리걸식을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혼자일 때보다 사정이 더 나빠졌다. 궁핍한 가운데서도 아내의 조력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문무겸전의 능력을 비로소 발휘한다. 나라에서 과거를 열자 장원급제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곧 바로 고관에 임명됨으로써 부귀영화의 길에 들어선다. 조정에서는 재상이요 나아가면 장수가 되며, 누구에게나 용맹과 충의가 있는 인물로 칭송받는다. 노년에는 벼슬에서 물러나와 인생의 섭리를 깨달았고, 지상에서의 수명이 다하자 백일승천한다. 이같은 줄거리를 보더라도 작자평 이외의 사상이 담겼음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초반의 고난과 중반 이후의 영달이 작품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때, 작자평에는 중반 이후의 영달 부분만 반영되어 있고 초반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다.

작품을 편의상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본다면 고난 부분은 전반부가 되고 영달 부분은 후반부가 된다. 작자는 전반부를 상당한 분량으로 서술해 놓고도 왜 작자평에서 주목하지 않았겠는가? 작자평이 작품 말미에 붙어 있음을 유념해보자. 작품을 모두 서술한 뒤 논평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새롭게 첨가하거나 작자의 사상과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이다⁹⁾. 따라서 논평부에서 언급이 없다면 작자가 주목하지 않았다는 말이 일단 가능하다. 이것은 『史記』 이래 서사문학의 오랜 전통이고, 신유복전의 경우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유복전에서 전반부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작자가 신유복의 고난 부분을 그 자체로 인정하기보다는 영달부분을 서술하기 위한 수단으로 치부했다는 증좌이다. 고난 부분이 그렇게도 중요하지 않은가? 고난이 있기에 영달이 의의를 지닌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다. 이 상식에 기대더라도 후반부 이상으로 전반부가 중요하다는 입론이 성립된다.

요컨대 작품의 논리는 작자의 논리와는 다르다. 작자의 세계관 이상이 작품의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으니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균형 있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작품이 작자의 의도를 어떻게 벗어나며 그 의의는 무엇인가를 가늠할 수 있을 터이다. 이런 문제 해결은 작자의 논리와 작품의 논리가 다른 소설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9) 金光淳, 『韓國擬人小說研究』, (새문사, 1987), 75쪽 참고.

3. 作品 構造와 超越的 存在의 機能

신유복전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균형 있게 짚어보기 위해서는 작자평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작자는 후반부만을 중시하므로 작자평을 염두에 둔다면 전반부를 소홀히 할 우려가 생기게 되고 작품 전체의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터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사건의 매듭에 따라 단락을 구분하고 사건의 전개양상을 살핀 다음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가) 신유복은 진사 신영의 유복자로 태어남
- 나) 모친, 춘매와 사별한 후 유리결식함
- 다) 호장의 딸과 결혼했으나 곧 쫓겨나와 궁핍하게 살아감
- 라) 장원급제 후 고관이 되자 처족에게 양갓음을 함
- 마) 명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원병장으로 출전하여 대공을 세움
- 바) 부귀영화를 누리다 만년에 치사하고 후에 백일승천함

모두 여섯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가), 나), 다)에서는 신유복의 고난을 다루었고, 라), 마), 바)에서는 신유복의 영달을 다루었다. 고난은 부모 구물 후 유리결식하고 처가에서 쫓겨나와 어렵게 사는 것이므로 궁핍한 생활이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런데 영달의 내용은 일정하지 않다. 장원급제하여 처족에게 양갓음하는 것과 국외에 원병장으로 가는 것과 부귀영화를 누리다 백일승천하는 것이 영달의 구체적인 내용인 바, 각기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모두 한 인물에 결부된 셈이다. 그렇다면 고난에 빠진 신유복이 세 가지 방면으로 영달을 이룬다는 내용이 되는 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전반부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문맥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경우라면 고난이 처족에 의해 야기된다는 점을 들어, 이런 각도에서 연결 여부를 따질 법하다. 필시 후반부에서 처족에 대한 양갓음 장면은 필요하지만 처족과 관련이 없는 국외원정 장면이나 백일승천 장면은 사족이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문맥의 이면을 중시하는 경우라면 고난이 내포한 문제의식을 찾아내어,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결 고리를 확보할 것이다¹⁰⁾. 전자의 경우에 선다면

10) 작품에는 어떤 식으로든 통일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통일성을 여

작품의 불통일성을 운위하게 마련이고, 후자의 경우에 선다면 작품의 통일성을 운위하게 될 터인데, 연구자가 취해야 할 입장은 당연히 후자의 경우이다. 작품에 마련된 통일성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연구자의 임무이지 불통일성을 언명하는 것이 연구자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난 부분을 깊이 있게 되새겨 그 이면에 있는 문제의식을 찾아내기로 한다.

고난은 신유복의 출생 전부터 예시되어 있다. 부모가 “전칭에 죄 중하야 수한 이 길지 못함 이 아희가 초년 고싱을 면치 못”(3쪽)하리라는 선관의 계시가 있었고, 이것은 현실로 나타났다. 모친의 태중에서 부친을 사별하고 5세에는 모친마저 사별하고 9세에는 시비 춘매와도 사별하게 되니, 가내 노복은 뿔뿔이 흩어지고 가산은 탕진되어 지닌 것이라고는 “호적과 세세 혼 장”(7쪽)뿐이다. 어떻게든 살아야 하겠기에 마냥 울고 있을 수만도 없다. “마을 마을 차저 밥을 비러먹고 날이 저물면 방아간에 드러가 밤을 지니고 밋일 도문결식”(8쪽)하는데, 이렇게 해도 연명하기가 어렵다. 남의 집 소를 먹여주고 끼니라도 이을 방도를 찾아나서지만 양반 자제로서 영락하기가 이와 같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스럽다. 다시금 목동 생활을 청산하고 정처없이 결식행각을 벌이며 전라도 무주에서 경상도 상주까지 흘러드는데, 이 때의 물결이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남의 눈에 비친 신유복의 형상이 어떤지를 보자

A편 : 상주목사 아희의 의복이 람누하야 몸을 감초지 못하고 머리터럭이
호터저 낫출 가렸는지라 거문 때가 주주리 밋쳤스니 그
추비혼 거슬 바로 바로 보지 못홀너라 (10~11쪽)

B편 : 호장 흉악하고 망측하야 바로 보지 못홀너라(12쪽)
호장 처 흉악하고 망측하다 저갓흔 흉물이 세상에 또 잇슬가(13
쪽)
경옥, 경란 저러흔 인물을 우리비갓튼 몸에 비하느릿가 영천수가
갓가 오면 귀를 쓰고자 하느이다(13쪽)

주변인물 몇 명을 통해보니 외양이 너무나 형편없다. ‘의복이 람누하야 몸을

하히 찾아내느냐 하는 것은 연구자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다.

감초지 못' 하니 누구라도 거지라 하지만, 거지의 장래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일치하지 않는다. 즉 A편인 상주목사와 B편인 호장, 호장 처, 경옥, 경란의 주장이 서로 엇갈린다. 상주목사는 “장년에 귀이 될 아히라”(12쪽)고 하고 호장, 호장 처, 경옥, 경란은 “집을 망케 하는”(13쪽) 조짐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상주목사의 경우 흉한 물골 속에 감추어진 골격과 풍채를 보았기 때문이고, 호장, 호장 처, 경옥, 경란의 경우는 이 정도로 영락한 처지라면 앞으로 재기하기가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몰락하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A편의 생각도 타당하고, 일단 몰락하면 좀처럼 失勢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B편의 생각도 타당하다. 양편의 주장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지니고 있으니 쉽게 결판이 날 수 없는 바이다. 그러고 보면 고난 이면에 숨어 있는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속모습과 겉모습의 우위다툼이다. 이를 확인했으니, 우위다툼의 추이를 눈여겨보자.

처음에는 A편이 수적으로 열세에 처하나, 호장의 세째딸인 경패가 A편에 가세하면서 사정이 달라진다. 경패는 언니인 경옥, 경란과는 달리 사람의 속모습을 보고 뽕뽕이를 파악하는 자이다. “저 아히의 용모를 보니 비범하기 비홀 데 업스며 상이 비록 썩 속에 못쳐스나 반다시 후일에 귀이 될 사롭이라 엇지 일시 빈천흔 것을 홍보”(14쪽)했느냐고 하며 신유복을 기꺼이 낭군으로 맞아들인다. 부모의 노여움을 사서 집을 나오게 되지만, 경패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신유복에게 원강대사를 천거하고 책을 얻어주면서 공부하기를 강권한 것은 자신의 소신을 관철하고자 함이다. 혹시 다른 일에 신경을 쓸까 우려하여 모진 말도 거침없이 한다. “팔 년을 공부하야 이십이 되거든 내려와 반기려니와 만일 그 전에 내려오면 결단코 세상에 있지 아니하”(17쪽)했다고 했으니, 신유복이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원래 재능이 탁월한 데다 성취 동기가 확실히 주어지자 신유복의 능력은 일취월장한다. 이제 과거를 치르기만 하면 장원급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속모습을 보고 사람의 뽕뽕이를 파악하는 A편의 주장이 승리할 수 있을 터이다.

겉모습을 보고 뽕뽕이를 평가하는 B편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다. 새롭게 B편에 가담한 두 동서¹¹⁾는 신유복을 만날 때마다 냉대하기만 한다. 동서들과는 두 번 만

11) 두 동서는 신유복이 과거시험을 치르기 직전에 등장한다. 등장하자마자 호장부와 합세하여 신유복을 괴롭히기 시작하므로, B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동서가 무슨 소신이 있어서 B편을 택한 것은 아니다. “일전 부모의 말을 듣”(20쪽)고 무작정 신유복을

나는데, 한 번은 과거 보러 갈 때이고 또 한 번은 과장에서 시험을 치를 때이다. 첫대면에서 신유복이 말을 걸자 두 동서는 “말 덕답도 아니히고 물을 직촉해야 모라가”(20쪽)버린다. 행색이 초라하기 때문에 같이 대화하면 체면이 깎인다고 여긴 탓이다. 그 다음 대면에서는 냉대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 과장에서 마주치자 “거지놈이 어딴로 드러왔나야 저 놈을 어서 잡아니니여라 사름 만히 모힌 거슬 보고 좇츠왔스나 저 놈을 빗비 잡아니니라”(23쪽)고 길길이 날뛰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동서지간이라 하기가 수치스러워서 자심하게 대한 것이다. 신유복이 대응할 길이 별반 있지 않다. 동서들의 처사를 개탄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렇게 보니 B편의 기세도 여간 아니어서, A편의 우위가 확실하지 않다¹²⁾. 그렇다면 양편의 대립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이것이 전반부에 나타난 문제 제기이다.

전반부 내내 감돌던 긴장감은 후반부 초두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 신유복은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고 임금으로부터 만고영웅이라는 칭송을 듣게 되는데, B편에 대한 우위가 이로써 확보된다. “무동충부를 압세우고 청기흥기를 밧드며 옥저를 불고 장안 넓고 너른 디로”(25쪽)를 활보한 것은 A편의 우위를 세상에 공표하는 의의를 지닌다. 이제 이런 우위를 실제로 입증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신유복은 수원부사로 발령받았으나 부임하지도 않고 곧 바로 처가가 있는 상주로 내려간다. 처가에서 손상된 위상을 바로잡으려는 집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인데, 이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인은 “복걸사죄”(40쪽)하며 연신 ‘사도림’, ‘사위림’이라 하기 바쁘고, 두 동서는 “박디흔 일을 심각히 혼불부신희야 덜덜 썰”(32쪽)고, 두 처형은 애초 신유복을 남편으로 맞아들이지 않았음을 “후회막심”(37쪽)해 한다.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처우해야 A편의 우위를 다질 수 있을 것인가? 신유복에게 주어진 과제는 바로 이것이다.

박대하니 무척 맹목적이라 할 수 있다.

- 12) 결모습과 속모습의 우위다툼에 동서 둘이 가세하여 긴장감을 조성하는 경우는 필자 소장본인 『속검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은 뚜꺼비로서 흉칙하기 이를 데 없지만 명석하고, 두 동서는 아전출신으로서 방탕하지만 수려한 용모를 갖추었다. 용모 수려한 자가 용모 흉칙한 자를 박대함으로써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는데, 용모 흉칙한 자의 반격이 만만치 않은 것이 최대 특징이다. 뚜꺼비는 常人이고 두 동서는 中人임을 감안하면 신분 간의 우위다툼이 가족문제로 결부되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사회 현상을 가족문제로 압축시켰다는 데 묘미가 있다 하겠고, 이런 묘미가 신유복전에서도 잘 나타난다.

신유복은 장인과 장모, 두 처형은 쉽게 용서하지만, 동서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방법으로 앙갚음하고자 한다. 우선 두 동서가 아전 출신임을 들어 자신의 비장으로 임용하고 트집 잡을 빌미를 만들어낸다. “너의는 각별 조심하라 레방 공방의 거행을 소홀치 말며 한만치 말고 착실히 거행하되 만일 잘못 거행하면 장하에 죽기를 면치 못하리라”(42쪽)고 선언한 다음, 곧 바로 잔치를 배설하게 한다. 잔치를 배설함은 장원급제를 자축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두 동서를 괴롭히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음식 장만이 부실하다는 트집을 잡고는 두 동서를 “마당에 쏘니고 꾸짖”(42쪽)다가, 제 풀에 화가 치밀자 급기야 형틀에 올려놓고 “수십 도식 밍타”(43쪽)한다. 혼이 절반쯤 나간 두 동서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신유복은 이 간청을 들은 채도 아니하며 태형을 집행할 뿐이다. 처가에서 배설한 잔치에서 두 동서를 혼비백산케 했으니, 이 잔치야말로 A편에 대한 우위를 결정적으로 확인하는 儀式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 속모습에 대한 우위확인은 또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능력을 인정받아 고관이 되었을 무렵, 중국 황제가 조선에 원병 요청을 해왔다. 조선 임금으로서의 여간 고민이 아니다. 황제의 요청을 받아들이자니 전쟁을 각오해야 하고, 황제의 요청을 거절하자니 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 신유복이 어전에 출반하여 “구원을 보너지 아니하면 름국덕접이 아니옵고 가달이 만일 중국을 멸하오면 조선도 순망지한으로 어렵”(50쪽)다는 명분을 내걸고 원병군 파송을 강력히 주장한다. 여기서 ‘순망지한’¹³⁾이라 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 ‘순망지한’이란 강국이 약국에 원병군을 보내고자 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인데¹⁴⁾, 신유복은 중국에 원병군을 보낼 때 이 말을 사용한 것이다. 용례를 뒤집어 사용한 것은 조선이 사실은 중국을 도와주는 강국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원병장으로 출전한 신유복은 전장에서 오랑캐를 연파함으로써 조선이 중국을 도와주는 강국임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국위 선양은 처가족에 대해 우위 확보와는 무관하며, 속모습을 강조하는 A편의 또 다른 표현이다. 속모습의 우위가 처족에 대한 앙갚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국위 선양을 도모하는 데까지 이르렀

13) ‘순망지한’을 誤記한 것이므로, 바로 잡아 쓰고자 한다.

14) 임진록에서 이와같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원병군을 파견하는 명나라나 원병군을 불러들이고자 하는 조선이나 다같이 屢亡齒寒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순망지한은 국제 간 動兵의 명분으로 사용되는 요긴한 말이라고 하겠다.

다고 할 수 있다.

속모습의 우위를 강조하는 것이 이런 식이라면, 사건의 확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신유복의 백일승천도 이런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다.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 신유복이 낙향했을 무렵, 신유복과 경패가 원래 천상 선인이었음이 새삼스럽게 강조된다. 작품의 전반부 초두에 신유복과 경패가 각기 그 모친의 태몽을 통해 천상 선인이라고 한 바가 있는데¹⁵⁾, 이 사실을 후반부 말미에 강조함으로써 속모습의 우위가 천상으로의 복귀로 이어질 것임을 예시한다. 4월 망간에 신유복은 일가족을 모아놓고 대연을 배설한다. 풍악을 갖추고 한바탕 즐기고 있을 때 난데없이 천상 선관이 내려와 신유복 부부를 하늘로 인도하는데, 천상으로의 복귀가 이미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없다. 태중에서는 꿈을 통해 천상인으로 예시된 정도이나, 만년에는 현실을 통해 엄연한 천상인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렇게 보면 속모습의 우위 확인은 처족에 대한 양값음, 나라의 위세 선양을 거쳐 천상으로의 복귀를 끝으로 완결되었으니, 그 자체로 유기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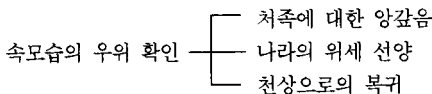
문제의식을 찾아내고 작품의 유기성을 따졌으니, 이제 이를 통해 신유복전의 구조적 특성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신유복전에서는 속모습을 강조하는 A편과 겉모습을 강조하는 B편의 서로 다른 주장이 제시된다. 애초에는 겉모습을 강조하는 편이 우위에 서지만 속모습을 강조하는 편이 강화됨으로써 양쪽이 상호 우위에

15) 해당되는 대목을 들어본다.

신유복 —그 날 밤에 부인이 차연 곤뇌하야 안식에 의지하야 잠깐 조호더니 비몽사몽 간에 한라산 선관이 일기 선동을 다리고 와 부인을 디하야 왈 부인의 정성을 감사이 역기여 이 아회를 드리니 잘 교륙시케 문호르 빗늬게 하시되 이 아회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 텡상 규성 견동으로서 하느님제 득죄하야 진세에 적강함을 당하얏스나 일후 령귀현이와(3쪽)

경 패 —경픽을 잉틱홀 썬에 텡상에서 선관이 내려와서 일오되 나는 월궁 선녀로서 옥항상매제 득죄하고 인간에 적강하얏기로 텡세에 년분을 추저와 덕에 의탁코 주 왓싸오니 십습 년만 양륙하야 주읍쇼셔 하고 품에 들거늘(10쪽)

16)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입각한 대결을 벌이다가 최종적으로 속모습을 강조하는 편의 우위로 판가름이 나는데, 열세에 있던 편이 일정한 계기를 통해 확실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구조의 특성이다. 구조가 이렇다면, 이런 구조를 지닌 작품의 전체적인 성격은 무엇인가? 열세에 있던 편이 일정한 계기를 통해 확실한 승리를 거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꼼꼼이 따질 필요가 있다. 열세에서 승리로 넘어가는 과정이 현실적인 계기에 의해 이루어지느냐 초월적 계기에 의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작품의 주제 및 전체 성격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정한 계기'란 두 말할 것 없이 장원급제이다. 능력이 탁월하니까 장원급제를 했다고 치부하고 말 일이 아니다. 혹심한 궁핍에 쪼들리던 신유복이었던 만큼, 어떻게 場中諸俱를 마련하고 끼니를 지가 관심거리이다.

* 류복이 명지를 수려 하고 명지전에 가서 돈이 저근 고로 파명지를 구하더라 이 날 명지 장수 홀연 조을더니 난티업는 청룡이 소리를 지르며 파명지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거늘 놀나 썩나 헌 옷 입은 선비 파명지를 들고 수조호미(22쪽)

* 또 필목점에 드러가니 필목 장수 또호 조을더니 파필 솟헤 계화 만발하고 부러진 목이 변하야 금독집이 되어 계화를 물고 쾰니로 드러가거늘 장수 놀나 썩어보니 헌 옷 입은 선비 와서 부러진 필목을 잡고 팔나 호거늘(22쪽)

* 문득 바라보니 두부집이 잇거늘 비지를 사려홀 지음에 잇찌 두부 장수 맛춤 방문을 비고 잠이 드럿더니 청룡이 구름을 타고 계화를 물고 가려호거늘 놀나 썩나 헌 옷 입은 선비 비지를 사조 호거늘(22--23쪽)

신유복은 장중제구를 마련하기 위해 명지전과 필목점을 들르고, 끼니를 잇기 위해 두부집을 들른다. 당연히 질이 좋은 명지와 필목을 구입해야 하고 배를 채울 밥을 사 먹어야 맞다. 그런데도 돈이 없어 '파명지'와 '부러진 필목'을 구입하고자 하고 '비지'를 사 먹고자 한다. '비지'로 끼니는 때울 수 있다고 해도, '파명지'와 '부러진 필목'으로 과거 시험을 치를 수는 없다. 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장중 제구를 마련할 때마다 가게 주인이 잠깐씩 줄면서 꿈을 꾸고 신유복이 장원급제하리라는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신유복은 질 좋은 명지와 필목

을 무상으로 얻을 수 있었다. 누가 가게 주인에게 이런 계시를 주었는가? 주인 세 사람이 동일 체험을 했음을 감안하면 계시를 준 주체는 분명히 있다. 다만 작품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으니, 계시를 준 주체를 그저 초월적 존재라고 해 두기로 한다. 이처럼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여 이상 성취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유복전은 理想主義에 경도된 소설이라는 지적이 가능해진다. 이상주의라도 그 정도가 문제이니 이를 따져야 하겠다.

- 1) 탁월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현실상승욕구를 지니고 있다
- 2)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상승욕구가 좌절한다.
- 3) 초월적 존재나 이념이 개입한다
- 4) 문제가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해결된다

박씨전을 통해 도출된 창작방법을 인용해 보았다¹⁷⁾. 박씨전은 下層英雄小說史에서 이상주의를 가장 잘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되므로, 신유복전을 이에 대비해 본다면 이상주의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신유복전에서는 1), 2), 3)이 그대로 나타나고, 4)는 나타나기는 하나 성격이 판이하다. 즉 탁월한 능력으로 개인의 출세와 가문의 영광을 도모하고자 하니 1)에 부합하고, 궁핍을 면하려고 하니 점점 비참한 지경으로 빠져들었으니 2)에 부합하고, 장중제구 마련 시에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니 3)에 부합한다. 그러나 처죽에 양값음한다든지 원병장으로 중국에 간다든지 만년에 백일승천한다든지 하는 것은 속모습의 우위 확인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을 지니므로, 문제가 어긋난 방향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박씨전에서의 4)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박씨전과 신유복이 다 같이 이상주의를 지향하는데도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작품이 다르니 차이가 생긴다는 대답은 하나마나한 대답이다. 이상주의에서는 초월적 존재나 이념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따져보고 판단할 일이다.

박씨전에서는 초월적 이념인 천명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개입하는데, 보수적 관념과 결탁하여 주인공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기능을 한다. 가령 박씨는 가중의 박대를 상쇄할 능력이 있음에도 천명이라 하여 한탄과 눈

17) 辛泰洙, 박씨전에 나타난 現實과 理想의 關係, 『嶺南語文學』25, (嶺南語文學會, 1994), 313쪽 참고.

물로 세월을 보내고, 丙子胡亂史를 바꾸어놓을 능력이 있음에도 호란은 천명이라 하여 체념해 버린 바와 같이, 초월적 이념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유복전은 이와 판이하다.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여 주인공으로 하여금 장중제구를 마련하도록 주선하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다¹⁸⁾. 따라서 박씨전에서의 초월적 이념은 견어내야 하는 것이고, 신유복에서의 초월적 존재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신유복은 흑심한 궁핍에 시달리면서도 처족에 대한 앙갚음, 국외원정, 백일승천이라는 이상을 지향한다. 현실과 이상의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여 조력하지 않으면 간격이 도저히 좁혀질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박씨전에서의 주인공은 초월적 이념과 대립관계에 있고, 신유복전의 주인공은 초월적 존재와 의존관계에 있다. 대립관계나 의존관계는 현실과 이상의 隔差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박씨전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인공의 능력으로 메울 수 있고, 신유복전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주인공의 능력으로 메울 수 없다. 초월적 이념이나 초월적 존재의 필요성 유무는 이렇게 해서 생겨난다. 그렇다면 신유복전의 이상 성취가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를 짚어볼 수 있다. 현실적 궁핍을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 주인공이라면, 행위의 결과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 성취 중 처족에 대한 앙갚음, 백일승천은 분명 개인적 차원이고 국외원정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신유복의 曆亡齒寒論 자체만 보면 민족적 차원에서 해석될 여지도 있기는 하지만, 신유복이 대공을 세운 뒤에도 명에 대한 조선의 위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고 그 대신에 신유복의 위상만 크게 올라갔다. 民族主體性을 병자한 개인의 영달 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유복전은 주인공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상주의를 구현하는 소설이다.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되 현실과 이상의 격차를 메우는 기능을 한다면 주인공의 행위는 민족적 차원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현실과 이상의 격차가 거의 없도록 설정되었다면 박씨전의 경우와 같이 초월적 존재가 주인공의 능력 발휘를 방해하는 쪽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많고, 초월적 존재 때문에 주

18) 초월적 이념과 초월적 존재의 차이는 없다. 양자 모두 주인공이 한계를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한계를 느낄 때 도와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념'과 '존재'의 차이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초월적'이라는 형용어구의 일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공이 겪는 고심이 선명히 드러났을 터이다. 신유복전의 초월적 존재는 독자에게 주인공이 얼마나 고심하는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주인공이 얼마나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4. 理想主義 具現의 社會的 意味

신유복전은 1917년에 창작된 소설이다. 1917년이라면 일제 치하인데,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신유복전이 지니는 위상은 무엇인가? 신유복전은 인조 연간을 주된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작자가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주인공이 겪는 궁핍, 박대는 결코 인조 연간의 역사적 사실로서만 치부될 수 없다. 설사 작자가 별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작품의 내용이 향수자가 처한 시대 상황과 대응관계에 있다면 작품과 시대 상황과의 대비는 가능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유복전에 설정된 현실 상황, 주인공의 대응태도를 점검하고 창작 당시의 현실 상황에 비추어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따져보자.

현실에 대한 주인공의 대응태도는 모친, 춘매를 사별한 이후 처음 나타나므로, 여기서부터 점검하기로 한다. 어린 나이에 홀로 된 신유복은 유리결식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해도 끼니를 이을 수 없자, 소 먹이는 목동 노릇을 하기에 이른다. 신유복과 같이 일하는 목동은 한두 명이 아니다. 신유복은 자신의 처지를 “바람에 쏘티갓치 물결에 쓴 부평초”(9쪽)에 비유했다. 그렇다면 신유복과 같이 일하는 목동들도 비슷한 처지의 부평초인 셈인데, 현실 세계에는 집 없이 떠도는 부평초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능력이야 목동 중에서 가장 빼어났지만, 의식면에서는 여타 목동에 비해 앞서는 것이 아니다. 연신 신세 한탄만 할 뿐이고 자신이 궁핍에 빠지게 된 구체적 원인을 꼬집어내지 못하는데, 탁월한 능력으로도 감지하지 못할 만큼 현실의 벽은 높고 견고하다.

* 쇼체 류복다려 알 슬푸다 텃디만물지중에 가장 귀훈 거슨 소롭이라 흐엿
거든 소롭만 못훈 짐심도 궁귀 잇거늘 우리는 엇지흐야 의지가 업논고 싱
각흐면 엇지 이달지 아니흐리요(15쪽)

* 류복이 늙의 집 물도 기러주고 방○질도 히 주니 귀같은 면흐나 의복이 업
소오릭 의표가 가장 취비흐더라(16쪽)

* 금일은 내 전년에 집에 도라가 쓸 말이나 도적하야 낭군의 과거 노비를
 붓티리라 하고 밤을 기다려 가만이 건너가며 상각하되 요행으로 쓸 말
 나 도적(……) 과거 노수나 붓기고 만일 잡히면 도적이니 아니될까 하고
 주저하다가 친정에 다다려 쌀고로 드러가 쌀을 프다가 어미께 잡피니(20
 -21쪽)

신유복이 경패와 결합한 이후의 상황을 몇 가지 인용해 보았는데, 이 때에도 현실에 대한 성찰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주인공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해서, 작품을 읽는 독자도 그러리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소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작품에는 엄연히 현실 세계의 제 양상이 나타나므로, 신유복전에 관심을 갖는 독자라면 작품 내의 현실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에는 끼니를 잊지 못해 결식하는 자도 있지만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자도 있다. 신유복 부부가 동남을 다닐 때 동리 사람들이 “어엿비 여겨 음식을 익기지 아니하고”(16쪽) 준다고 했으니, 동남을 다니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배풀어주는 자도 있는 것이다. 배풀어주는 자들은 나름대로 기반을 갖추고 한 곳에 정착한 자들이라고 볼 때, 신유복 부부가 생계수단을 갖추지 못했기에 떠돌아다닌다고 하겠다. 생계수단의 중요성이 작품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독자는 필시 궁핍의 원인이 주인공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독자의 이런 인식과는 달리 신유복 부부는 궁핍의 원인이 호장에게 있다고 치부한다. 신유복은 처가의 박대에 “설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야 전신을 썰썰 썰며 울”(21쪽)고 경패는 “부모림도 야속하다 혼 번도 잊지 사는 양을 못는 일도 업고 한 줍도 주지 아니”(20쪽)한다고 원망했듯이, 처가의 박대나 궁핍의 원인이 오로지 호장에게 있다고 여긴다. 호장이 신유복 부부를 내쫓았기에 궁핍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호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틀림없으나, 위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쫓겨났다는 것과 궁핍한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다. 설사 쫓겨난 처지라 하더라도 한 곳에 정착해서 얼마든지 기반을 갖추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생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지 않고 궁핍의 원인을 오로지 호장에게 돌리고 있으니, 현실을 성찰하는 식전이 모자란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호장에 대한 원한이 너무 큰 탓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기보다는, 생계수단을 모색하지는 않고 호장만을 원망하는 탓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타당할 것이다.

주인공과 주변환경과의 관계가 이처럼 분명한 것은 서술자가 신유복을 현실 세계의 구조 속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주변환경에 관한 서술이 없었더라면 독자는 신유복의 언급대로 궁핍의 원인이 전적으로 호장에게 있다고 느낄 것인데, 서술자가 신유복과 대비되는 주변환경을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궁핍의 원인이 오히려 신유복에게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술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서술자가 신유복과 주변환경을 한꺼번에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신유복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고 하겠고,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에 신유복의 궁핍이 사회 구조의 한 현상으로 부각된다. 서술자가 독자로 하여금 사회 구조 속에서 신유복을 판단하게끔 요구하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 구조를 자세히 서술하면 서술할수록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신유복의 면모를 강조하게 되므로, 탁월한 영웅이 어떤 모습을 지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하는 작자의 의도와는 어긋나고 만다. 신유복이 탁월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술되어야 하는가?

서술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의식하면서 다음 장면을 눈여겨 보자. 신유복은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과거에 나아갔고, 곧 바로 장원급제를 하게 된다. 임금이 신유복을 대면하면서 “너의 용모를 보니 만고영웅이라”(26쪽)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만고영웅으로서 주변환경과 대결하는 장면이 이어질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 처족에게 양값을 하기 위해 처가로 내려가는 장면, 도입지의 관속이 처가가 있는 곳으로 수소문해서 물려오는 장면만 장황하게 서술될 뿐이다. 처족에 대한 양값음이 신유복에게는 아주 중요하나, 만고영웅을 그려야 하는 서술자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도 서술자는 만고영웅의 면모를 서술하기보다는 양값음의 과정을 서술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장인과 장모, 처형과 동서가 어떻게 굴복하는지가 이렇게 해서 상세히 드러났지만, 서술자는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신유복 자체에만 매달리는 형세가 되고 말았다. 사회 구조 속에서 신유복을 비추던 초반 서술자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으며, 신유복 위주로 사건을 서술해 가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신유복 위주의 사건 전개는 서술자와 신유복의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 구조의 양상이라 할 만한 장면도 신유복 개인의 차원으로 전락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묘역에 동원된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유복은 상주 지방의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선조

의 묘역을 손질하는 大役事를 벌인다. 臨地 아닌 곳에서 많은 백성들을 수일 동안 동원한다면 그냥 부릴 수가 없을 터인데, 실제로 “묘하 백성을 불너 돈 슈빅량을 疇하로 사급”(40쪽)했던 바이다. 백성들이 신유복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賃勞動을 한 셈이고 신유복은 노동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셈이다. 관장과 백성이 사실상 계약관계를 체결했다고 하겠으나, 서술자가 신유복의 편에 일방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임금의 지불은 ‘사급’으로 바뀌고, 금전을 받고 의례적으로 하는 감사의 변은 ‘관장에 대한 칭송’으로 바뀌어 있다. 賃勞의 사회적 성격이 드러날 법도 하지만, 서술자가 신유복에 가까이 있는 까닭에 이것이 불가능했다.

서술자가 거리를 좁혀가자 주변환경이 잘 부각되지 않는데, 서술자가 거리를 좁히면 좁힐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진다. 국외 원정장면에서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신유복이 명나라에 거느리고 간 조선 군사는 삼천 명이다. 명나라 70여 만 명의 군사가 오랑캐에게 참패했음을 감안하면¹⁹⁾ 고작 삼천 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신유복의 검술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나, 이만으로 많은 적을 상대하기는 어렵다. 도술 능력이라도 지녀야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다. 하충영웅소설의 주인공은 대개 강력한 도술 능력을 지니고 위기를 타개하는 데 비해, 신유복은 이런 도술 능력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신유복은 매사에 당당하고 적극적이다. 적전에 단신으로 뛰어들어 적장들을 하나하나 처치하고 대공을 세우는 바, 적장의 능력이나 적군의 수를 생각하면 신유복이 이렇게 대승을 거두기는 어렵다²⁰⁾. 서술자가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유복만을 줄곧 응시함으로써 신유복을 환경과는 무관한 예외자로 만들어 버렸다.

신유복의 말년장면에서는 서술자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 서술자는 신유복이 나이 70에 전라도 무주로 낙향하여 인생의 허무를 느낀다고 하다가, 직접 표면에

19) 명나라 군병과 오랑캐의 군병이 접전을 벌이는 것이 아주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싸움 결과는 명나라의 대참패로 나타난다. 명나라 장수 “원국이 칠십만 대병을 통괄의 손에 다 죽이고 게우 목숨만 보전하야 필마단기로 귀주성에”(49쪽) 도망갔다고 한다.

20) 현실적인 표현을 하느라고 도술 능력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논자도 있으나, 이렇게 찬사를 보낼 일이 아니다. 도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작품 내의 논리가 잘 이어지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표현’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나서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설파하기도 한다. “슬푸도다 인칭 슈요장단은 텅 연공리라 엇지 인력으로 흐리요”(75쪽)라는 것은 바로 서술자의 말인 바, 신유복을 들어 인생의 허무가 ‘텅연공리’임을 밝힌 것이다. 신유복의 생각이 서술자 자신의 생각과 틀리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신유복 스스로 “빅발이 성성히 다시 점든 못흐리로다”(75쪽)고 탄식한다고 했다. 서술자의 말이 곧 신유복의 말이고 신유복의 말이 곧 서술자의 말이니, 양자 간에는 전혀 거리가 없다. 말년장면에서는 신유복의 말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서술자의 말이 주로 나타는데, 이것도 까닭이 있다. 서술자와 신유복이 밀착되어 있기에 굳이 서술자의 말, 신유복의 말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런 정도이고 보면 신유복은 주변인물이나 환경과는 전혀 무관하다. 천상과 교통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인물이며, 역사적 시공을 완전히 벗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보니 서술자는 전반부에서 신유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점점 거리를 좁혀나갔고, 종래에는 완전히 밀착해 버렸다. 거리가 넓을 때는 시선의 이동이 느리고 거리가 좁혀질 때는 시선의 이동이 빨라진다. 당연히 신유복의 형상이 일정하지가 않다. 시선의 이동이 느릴 때는 떠돌이 생활의 고난이 상세히 나타나고, 시선의 이동이 빨라질 때는 영웅적 면모가 집중적으로 조명된다. 생활의 고난이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영웅적 면모가 약화되고 영웅적 면모가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생활의 고난이 약화되는 것이 전체의 흐름인데, 생활의 고난과 영웅적 면모가 별도로 떨어져 있다. 생활의 고난과 영웅적 면모가 과연 별도로 떨어진 것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아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영웅적 면모가 훼손되지 않으며 영웅적 면모가 있다 하더라도 고난과 무관하다 할 수 없으므로, 생활의 고난과 영웅적 면모를 별도로 둘 것이 아니다. 양자를 병치시키면서 상호관계를 따지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는데, 서술자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 못했다. 고난 속에서 영웅을 부각시키기가 쉽지 않자 고난을 버리고 영웅적 면모를 나타내는 편법을 택했던 것 같다.

서술자를 통해볼 때 신유복전은 임경업전과 여러 모로 대조된다. 임경업전의 경우 서술자의 시선이 애초 임경업에만 고정되어 있다가 차츰 임경업을 둘러싼 주변환경으로 옮겨가는데,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임경업 개인의 처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시선이 이동할수록 청과 명의 틈바구니에 있는 위정자의 고심, 백성들의 참상이 확대됨으로써 민족의 처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바이다²¹⁾.

이에 비해 신유복전의 경우 서술자의 시선이 처음에 주변환경을 비출 때는 사회 구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시선이 이동할수록 신유복만을 비추게 됨으로써 역사적 시공과는 무관한 개인의 형상이 나타난다. 임경업전은 현실의 폭이 좁다가 넓어지고 신유복전은 현실의 폭이 넓다가 좁아지므로, 임경업전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이 신유복전이라 할 수 있다. 두 작품이 이렇게 다르니 역사에 던지는 물음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임경업전의 경우 ‘개인이 역사적 현실과 어떻게 맞서는가’ 하는 물음이라면, 신유복전은 ‘역사적 현실이 개인을 어떻게 꺾박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렇게 되니 신유복전에서는 주인공이 역사적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해졌다.

서술자를 운용하는 것이 작자인 바, 서술자를 통해 작자의 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작자는 강고한 현실 속에서는 비록 영웅이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여긴 것 같다. 궁핍한 자의 사고범위나 행동체계로 세력을 얻자면 그만큼 거처야 할 단계가 많다. 생계수단을 확보해서 궁핍을 면한다고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작자는 서술자로 하여금 신유복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게 함으로써 사회 구조적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신유복이 이상을 펼치게 된 계기가 장원급제인 것처럼 꾸며놓았지만, 실상 장원급제는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처족에 양값을 하기도 하고 국외에 원정을 가기도 하고 이도 저도 염증이 나서 천상으로 올라간 것은 장원급제 때문이 아니고, 신유복에게만 초점을 맞추기에 가능했던 바이다. 이렇게 되니 신유복은 하등 고민이 없는 인물로 변해 버렸다. 작자가 복잡한 현실을 모두 감추어 버렸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되는 까닭이다. 임경업전의 작자는 ‘복잡한 현실 들추어내기’를 시도했다면 신유복전의 작자는 ‘복잡한 현실 감추기’를 시도했다 할 만하다.

작자가 현실을 감추려 한다고 해서 현실이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이다. 식민지 시대의 부정적 세계가 1917년대 독자들이 몸담았던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작자는 누차 ‘홍진비래 고진감래’를 강조한 바 있다²¹⁾. 신유복전의 주

21) 辛泰洙, 임경업전에서의 時運觀과 그 展開過程, 『語文學』56, (韓國語文學會, 1995)에 게재 예정 논문.

22) 작자는 서술자, 등장인물 그리고 작자 자신의 입을 통해 ‘홍진비래 고진감래’라는 말을 네 차례나 사용했다. 서술자의 경우 신유복의 모친이 사망할 때(5쪽), 신유복과 경패가 처가에서 쫓겨날 때(15쪽)이고, 등장인물의 경우는 신유복이 경패를 위로할 때(21쪽)이

인공이 출장입상하여 영달을 누리듯이, 우리 민족도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좋은 시절을 맞이할 것임을 시사하는 말이다. 작자가 독자에게 던져주고자 바가 이런 것이라면 작자의 의도는 분명 民族主義의 色彩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의도가 곧 성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작자가 내세운 ‘홍진비래 고진감래’가 캐케묵은 뜻으로 쓰이지는 않았다 해도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점, ‘복잡한 현실 감추기’에서 드러나듯 허무적이고 패배적인 의식이 짙게 배어 있다는 점 때문에 독자를 끌어당기기에는 역부족이다. 사건을 다채롭게 꾸며 흥미를 끌고 한편으로 영웅을 형상화하여 민족의 기상을 재확인하려는 이중적 포석이 있었겠으나, 작자 정신의 불철저로 인해 신유복전은 흥미부전에서 여타 通俗小說에도 미치지 못하고 민족 기상의 고취부문에서는 歷史傳記小說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정쩡한 작품이 되고 말았다.

작자가 이상주의를 구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작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이상주의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는 바, 주인공의 이상 성취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사회적 역사적 시공을 회피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온전히 제시하지 못했기에 문제인 것이다. 현실의 고난이 어디서 오고 이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매달려 심도 있는 성찰을 했어야 하고, 이것이 창작방법으로 뒷받침되었어야 했다. 작자는 이런 성찰과 고민을 하지 않았기에 ‘역사적 현실이 개인을 어떻게 핍박하는가’라는 그릇된 물음을 제출했고, 임경업전에서 마련된 ‘개인이 역사적 현실과 어떻게 맞서는가’ 하는 진지한 물음에 역행하는 기능을 했다.

5. 結 論

필자는 지금까지 신유복전의 작품론을 전개했다. 국외원정소설로 막연하게 다루어왔던 기존 연구의 경향을 벗어나서, 신유복전이 하층영웅소설임을 확인하고 기존의 하층영웅소설의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고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졌다. 그 결과 등장인물, 서술자, 작자의 상관관계와 역사인식, 작품의 시대적 위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 논의한 바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신유복전에는 작자평이라고 할 만한 논평부가 말미에 붙어 있는데, 논평

고, 작자의 경우는 말미에서 논평을 할 때이다.

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재능, 용맹, 충의, 안분지족이다. 작자가 이 네 가지 사항을 결구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구현하고자 한 듯하고, 작품을 통해보면 실제로 그런 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작품에는 이 네 가지 사항 외에 고난문제가 상당한 분량으로 서술되고 있어, 작자평과는 어긋난다. 작자의 의도와는 다른 문제가 서술되었으니, 작자의 논리와 작품의 논리가 다르다고 하겠다.

둘째, 문맥 그 자체로 보면 신유복전은 불통일성을 이루나, 문맥 이면의 문제의식을 보면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문맥 이면의 문제의식이란 속모습과 겉모습의 우위다툼이다. 우위다툼의 당사자들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데, 겉모습을 강조하는 편이 우위에 있다가 최종적으로 속모습을 강조하는 편의 우위로 판가름이 난다. 이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신유복전이 통일성을 지녔다 하겠고, 열세에 있던 쪽이 일정한 계기를 통해 확실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구조의 특성이 되고 있다.

셋째, 작품의 성격을 따지기 위해서는 초월적 존재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주인공이 이상을 성취하는 데는 초월적 존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므로, 일단 이상주의가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유복의 행위가 개인적 차원인가 민족적 차원인가? 국외원정 장면만 보면 민족적 차원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조선의 위상은 그대로이고 신유복의 위상만 크게 올라갔다는 점에서 民族主體性을 빙자한 개인의 영달 추구에 가깝다. 신유복전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상주의를 구현한 소설이라 하겠다.

넷째, 서술자의 시선이 처음에 주변환경을 비출 때는 사회 구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시선이 이동할수록 신유복만을 비추게 됨으로써 역사적 시공과는 무관한 개인의 형상이 나타난다. 서술자를 운용하는 것이 작자인 바, 서술자를 통해 작자의 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작자는 강고한 현실 속에서는 비록 영웅이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여기고, 서술자로 하여금 신유복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게 함으로써 ‘복잡한 현실 감추기’를 시도했던 바이다. ‘복잡한 현실 감추기’에는 허무적이고 패배적인 의식이 적지 않게 배어 있어, 독자를 끌어당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상과 같이 신유복전의 이상주의적 성격을 살펴보았는데, 작자의식의 한계로 인해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온전히 제시하지 못했다. 작자는 ‘평이 궁지에 몰리면 몸통은 내어놓고 머리만 치박는 식’으로 사회적 역사적 시공을 회피하고

자 했는데, 사회 모순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양상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낙관적 전망이 세워지지 않는다. 행복한 결말이어야 낙관적 전망이 성립되는가? 그렇지가 않다. 주인공이 험란한 투쟁을 하고 좌절하더라도 역사를 투시하는 신념이 살아 있다면 낙관적 전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컨대 신념이 모자라는 주인공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전망을 결코 밝게 가질 수 없다. 신유복전은 바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여준다.

參考文獻 및 論著

- 金繼輝, 夷簡公 神道碑銘, 『國朝人物考』
 馬融, 『忠經』
 司馬遷, 『史記』
 筆者本『속집전』
 권순궁, 申遺腹傳과 민족주체의식의 한계, 『成大語文』27, (成均館大 國語國文學科, 1990)
 金光淳, 『韓國擬人小說研究』, (새문社, 1987)
 辛泰洙, 박씨전에 나타난 現實과 理想의 關係, 『嶺南語文學』25, (嶺南語文學會, 1994)
 ———, 임경업전에서의 時運觀과 그 展開方向, 『語文學』56, (韓國語文學會, 1995), 게재 예정 논문.
 李永信, 國外遠征軍談小說研究, (韓國學大學院 碩士論文, 198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조선문학사 고전 연구실, 『고전소설 해제』, (문예출판사, 1991)